

박지원 “MB 인사는 ‘노벨인사상’ 감”

민주, 정동기 낙마에 탄력... 與 압박 드라이브 공세

靑 인사라인 문책 촉구... 최중경·정병국 의혹 제기

민주당이 힘을 받았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 장외로 나섰다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동력 저하를 고민하던 차에 12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로 정국 주도권을 쥔 반전의 기회를 잡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정 후보자 개인의 적성사퇴와 관련, 아닌 현 정권의 인사 철학과 국정 운영 방식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문책을 강력히 요구하며 여권을 향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이번 인사파동이 '반 MB(이명박 대통령)' 여론을 확산시켜 야권에 힘을 실어줄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시당

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정동기 개인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는 대통령의 인식의 문제”라며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도마뱀도 품통을 살리기 위해 팔과 다리를 스스로 잘라낸다”며 “노벨 인사상” 감이라는 조롱을 당하는 이 대통령의 인사, 사퇴할 사람은 사퇴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대통령이 살 수 있다. 오기인사가 아니고 순리인사를 해야 대통령이 성공하고 레임덕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대통령의 인사 무능, 독선과 야만의 국정운영으로 여권 내부에선 권력 압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고, 이춘석 대변

인은 “MB의 인사 스타일은 자기에 충성하는 사람에 회전문 식으로 계속 중용해 작년에 봤던 각설이를 또 보는 식의 ‘각설이 인사’라고 꼬집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정 후보자의 사퇴는 대통령의 불공정한 측근 챙기기 보은인사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자, 당연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장 인사에 부적절한 측근 챙기기로 무리수를 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인사청문의 과녁을 최중경 지식경제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게로 옮기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강창일 의원은 이날 최 내정자의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9개월치 미납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강 의원에

따르던 배우자는 1999년4월1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록했다. 이후 올해 1월까지 140개월간 모두 1266만39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지만 2000년 2~9월과 2001년 2월분 등 총 39만9000원을 미납했다.

최문순 의원은 정 내정자가 2008년 경기도 양평군 소재 임야 800㎡를 공시지가보다 6배 높은 가격에 보상받아, 대규모 개발 이익을 노린 ‘기획부동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정 내정자의 배우자 이상희씨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내리 353-1번지(임야 14760㎡)와 354번지(임야 5200㎡) 임야를 이른바 ‘기획부동산’으로 취득했으며, 이후 인근 개발로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의혹이 일고 있다”면서 “배우자 이상희씨는 1997년 7월 29일 공유자 22명과 함께 해당 임야를 취득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無償 시리즈’ 이번엔 무상보육

오늘 정책의총 통해 당론 채택 예정 孫 “토목정책 구조 바꾸면 재정 확보”

민주당이 ‘무상(無償)시리즈’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 정책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12일 민주당은 5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의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무상보육 정책을 13일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의총에서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한 지 1주일 만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고 5조원 투입을 통한 ‘반값 등록금’ 정책도 조만간 당론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의료·보육 정책과 반값 등록금 정책 등 이른바 ‘3+1’ 정책으로 2012년 총선을 치른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의 무상정책이 예산과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치 않

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관련,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시행 중인 토목정책과 재정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무상정책을 위한 재정확보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이어 “우리 책임 없는 구조로만 보편적 복지를 말하지 않는다”면서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은 2012년 집권을 위해 5년간 착실히 실행해나가야 할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좀 더 실천적인 계획으로 다듬어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최인기 농수식품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 농수식품위 전체회의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黨·靑 ‘정동기 후유증’ 수습 주력

MB 레임덕·국정 장악력 약화 조기 차단

“정동기 사퇴는 고심 어린 결단”

한나라 문책론에 부정적

한나라당은 12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관련, 고심 어린 결단이라고 평가하면서 청와대 인사책임자 문책론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당 중앙위 신년하례회에서 “정 후보자 사퇴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밝힌 뒤 문책론에 대해선 “책임은 무슨 책임이나”고 일축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정 후보자 입장에서 할 말이 많겠지만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 고심 어린 결단을 내렸다”며 “한나라당은 앞으로 더욱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은희 대변인도 “집권 4년차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고 국민감정을 고려해 내린 용단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향후 당청 관계 해법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시각차를 보였다.

김형우 전 국회의장은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청은 완전히 갈거나 다를 수 없고, 완승·완패주의에 젖어서도 안 된다”며 “모두가 걱정하는 레임덕 현상을 막기 위해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모임인 ‘함께 내일로’ 대표 안경철 의원은 “당과 청와대는 둘이 아니고 하나인 만큼 사전에 밀도 있게 협의했다면 더 좋았다”며 “앞으로 는 당청간 채널을 다양화해 교감하고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선 청와대의 변화와 참모진의 철저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정몽준 전 대표는 최고·중진회의에서 “청와대가 정 후보를 지명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얼마나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12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함에 따라 청와대는 물론 한나라당 등 여권에서는 파장 최소화하느라 주력하고 있다.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자마자 발생한 불상사가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여권의 국정 장악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특히, 청와대는 특히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사전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한 뒤 정 후보자가 물러난 것이 집권 말기 권력누수 현상(레임덕)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또한, 정 후보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 간사와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거친 측근이어서 이 대통령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점도 부담이 크다.

실제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야권은 정국의 프레임에 ‘레임덕 돌입’으로 규정하려 애쓰고 있고, 여권 일각에서 내리 글기였던 ‘레임덕’이란 단어가 점차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정 후보자의 사퇴가 개인적 문제임을 부각하고 있다. 고위직 후보자 1명의 낙마를 이대

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은 만큼 민심을 보고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면 국정 장악력에 상처를 입거나 주요 국정 과제 추진에 장애가 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이번 사태로 자칫 야권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면서 후유증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여당 지도부 인사들은 청와대 측과 다각적인 접촉을 갖고 “당청 갈등의 확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으는 등 파장 차단에 진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몽준 의원,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원내대표 등이 잇따라 언론을 향해 “무한책임을 가진 집권여당으로서 자중자해야 한다”, “당정청은 공동운영체” “레임덕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도 사태수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염병 발생국 여행 가축 소유주 검사 의무화

농식품위, 가축법개정안 의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위원장 최인기 의원)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자에 대한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최 위원장이 발의한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가축 소유주 등이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한 경우 반드시 방역당국의 질문·검사·소독을 받도록 했다. 일반인은 체류 관련 서류 제출만 의무화하고 질문·검사·소독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토록 했다.

개정안은 가축 소유주 등이 입국시 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해 가축 전염병을 발생·전파시켜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자에 대한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13일 ‘원 포인트’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구제역에 이어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급속히 확산할 조짐을 보이며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당정회의 개최를 정부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휴대전화 여론조사’ 흥준표, 범안 발의

한나라당 흥준표 최고위원은 12일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6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범안은 휴대전화번호 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여론조사기관 등이 여론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율형사립고 보문고등학교가 글로벌 교육의 미래를 선도합니다.

학교장 및 교원초빙·사무직원 모집

구분	세부내용	인원	비고
학교장	학교장 초빙 공모	0명	정교사 기간제
국어	국어, 글쓰기 등 (논술수업 가능자 우대)	0명	
영어	영어, 랩스 토크 등 (회화수업 가능자 우대)	0명	정교사 기간제
수학	수학수리논술 가능자 우대	0명	
행정	행정실 근무 (시설관리)	0명	정교사 기간제
시설	기숙사 행정 책임자	0명	
사감	여 기숙사 사감	0명	남 0명
	남 기숙사 사감	0명	
조리원	시간제 조리원	0명	

■ 교원 우대조건 ① 교원 인센티브 지급 ② 우수교원 해외연수 특전 부여 ③ 국내외 석·박사 학위 소지자 우대 ④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분 우대 ⑤ 독신자 속도 제공

■ 공고 및 서류 접수기간 ① 공고기간: 2011년 1월 10일(월) ~ 2011년 1월 19일(수) ② 접수기간: 2011년 1월 10일(월) ~ 2011년 1월 19일(수) 16:00 까지 ③ 접수장소: 보문고 행정실(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529번길 37 (온수동 308)) ④ 접수방법: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자 유무) * 인터넷 접수 없음

■ 문의처 학교법인 보문학숙재단(☎ 062-940-8805) 또는 보문고등학교 홈페이지(www.bomun.hs.kr)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10일

학교법인 보문학숙 이사장

since 1985. CH 중국문화원 | 광주분원

정통침구학 수강생 모집

공개강좌 및 설명회

광주20기) 1월 21일(금) 14:00-17:00

광주분원 위치: 지하철 화정역 4번출구 추천회관 뒷편

* CH중국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침구학에 관심있는 분 · 월회비: 9만원(교재포함)
- 기간: 매주1회 3시간 / 총 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항/경혈경락/비만침법/미용침법/중국어침/한방기초 등
- 가정생활 진단(자가)상식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연수과정

- 소정의 연수과정 수료후 침구계(3년),중의계(5년),결업증과 중국 침구사, 국가자격증 취득가능(해외사용가능)
- 의료 관련 업종의 소득증대효과, WTO개방 대비
- 세계 각국 해외 이민시 한방병원 설립 및 취업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생각보다 좋은 비누 **평미인**

평미인은 (사단) 아세아-태평양 자연 의과학 연구재단에서 제조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우리 몸 속 70% 물과 외부에서 씻는 물을 동조시켜 피부통로를 열리게 하여 몸속의 필요없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나오게 하는 원리입니다.

* 주요성분

- 특수 속성된 식물성 유지
- 살구씨 오일 및 분말
- 100% 천연향 로즈마리
- 천연신소재 HJ-1.2
- 클리레틴

* 사용범위

- 모든 환자의 진신 목욕
- 유아목욕, 노인 냄새 제거
-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 잦은 화장을 하는 여성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 환자를 많이 다루는 사람
-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 무좀, 습진, 비염)
- 치질로 고생하는 사람
- 입냄새, 입술터짐, 이가 시리고 아픈사람
- 농약을 다루는 사람의 목욕

비누 사용시 유의사항

- 5분간 2회 이상 비누 맛사지
- 보관시 다른 비누와 따로 보관
- 처음사용시 5분 2회 손 * 발 맛사지 후 사용

◆ 광주·전남·북 판매점/판매원 모집 ◆
상담문의 ☎ 010-3231-3665

남성 휴대용 **실물과 똑같은 내여자**

[꿈꾸는 공주]

내 여자가 장안에 화제다 얼굴이며 몸매가 모델을 뺀데 거기다 흔들며 떨어뜨니 창랑 거리는 머릿결 보드랍고 밀렁거리는 피부 감각 이는 눈동자 가슴과 신체 부위가 섬세한 데 이는 1m50이 되며 색사하니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린다. 본능적인 성욕을 해소하면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성'필리 예방도 되니 내여자가 인기폭발로 불타고 난다.

주문량 폭주

* 8만원 상당의 선물과 휴대용 기방도 드립니다.

(식약청 USA 통관제품)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지구력이 당당해 지므로 섭취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02302-469931(정의철)

생노병사 불노장생 책을 드립니다

사이텍 070-7786-6631 010-6306-7070 (미쓰코) 070-7786-9710 010-7102-7070